

## 세계 주요기업 해외 현지 고용 현황

(자료: 비즈니스위크)

회사	HSBC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필립스	프록터 & 갬블	액센추어	콘세코	델타항공	플루어	제너럴 일렉트릭
현지 고용 규모	중국, 인도 4000명	인도 3000명 (2005년까지)	중국, 인도 500명 (2003년 말)	인도 4000명	중국 700명	필리핀 650명, 중국 150명	필리핀 5000명 (2004년)	인도 1700명, 3개 지점 개설	인도, 필리핀 6000명	필리핀 700명	인도 2만명 (2003년 말), 중국에 대규모 R&D센터
고용 분야	신용카드, 대출자료처리	칩설계, 기술지원	소프트웨어설계, IT지원	소프트웨어설계, 고객지원, 회계	가전제품 연구 개발	기술지원, 회계	회계, 소프트웨어, 사무업무	보험료 지급업무 처리	항공권 예약, 고객서비스	건축, 설계	재무, IT지원, 의료·항공 관련 연구개발

# 값싼 고급인력 찾아 세계 뒤흔다

## 기업들 新세계화 전략

미국 기업들이 세계화 경영전략에 따라 값싼 해외 고급인력의 현지 채용을 늘리면서 미국내 화이트칼라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 미국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 최신호(2월3일자)는 '새로운 지구촌 직업이동'이라는 제목의 커버스토리에서 기업의 주요사업 부문 해외 이전이 미국 등 선진국과 개도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20년전 개도국으로의 생산시설 이전으로 시작, 단순 서비스업무의 이전에 이은 회계·재무·정보기술(IT)·소프트웨어 개발·금융·건축·설계 등 화이트칼라 직종의 해외이전이 시작됐다.

### ●싼 고급인력 찾아 밖으로

미국과 유럽, 일본의 주요 기업들이 앞다퉀 인도와 중국에 연구개발(R&D) 센터를 세우고 있다. 컴퓨터와 IT지원 등 사무지원 분야를 아예 인도로 옮기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주 샬럿에 본사를 둔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는 지난해 전체 기술·사무

## 20년전엔 생산시설·단순 서비스 이전 이젠 IT·SW등 고급서비스 아웃소싱 12년뒤 美 일자리 330만개 줄어들듯

지원 직원 2만 5000명중 3700명을 감원했다. 감원인원의 3분의1을 인건비가 미국의 20%인 인도에서 현지 채용할 계획이다.

고급 전문인력과 최첨단 통신망을 갖춘 인도와 중국, 필리핀, 동유럽, 러시아, 멕시코, 코스타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미국과 유럽·일본 기업들의 새 사무지원본부(백오피스)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의사소통에 불편이 없을 정도의 외국어 실력을 갖춘 인력이 풍부하고 임금은 직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미국의 5~20%에 불과하다. 제너럴 일렉트릭(GE) 의료부문 글로벌담당 부사장 디 밀러는 "화이트칼라직 해외 아웃소싱의 최대 장점은 세계 최고 인력을 적은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IT산업 연구기관인 포레스터 리서치의 존 매카시 연구원은 "개도국으로 화이트칼라 직종의 대이동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2015년까지 최소한 미국내 화이트칼라 일자리 330만개가 줄어들고, 임금 1360억달러가 해외 고용인력에게 지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 ●일시적 현상인가, 지구촌 차원 구조조정인가

화이트칼라군의 해외 이전은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비용절감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까. 전문가들은 이같은 분석도 가능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지구촌 차원의 산업 구조조정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뉴욕시립대 로버트 립시 경제학 교수는 "현재 해외로 이전되는 직종은 개도국들에 넘겨주고 미국은

해외 현지채용 확대로 줄어드는 미국내 일자리수 (단위: 개)

분야	2005년	2010년	2015년
생명과학	3,700	14,000	37,000
법률	14,000	35,000	75,000
미술·디자인	6,000	14,000	30,000
경영관리	37,000	118,000	288,000
사업운영	61,000	162,000	348,000
컴퓨터	109,000	277,000	473,000
건축	32,000	83,000	184,000
영업·판매	29,000	97,000	227,000
사무실지원	295,000	791,000	1,700,000
합계	588,000	1,591,000	3,300,000

(자료: 포레스터 리서치, 비즈니스위크)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에 있는 다른 영역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상적인 사무업무와 엔지니어링 분야는 개도국으로 이전하고 미국은 노동력과 자본을 고부가가치 산업과 최첨단 R&D분야로 재배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화이트칼라 직종의 해외 이전으로 미국내 종사자들은 직장을 잃거나 연봉이 깎이는 등 직격탄을 맞고 있다. 아직 그 정도는 미미하지만 보잉과 뉴저지 주정부처럼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기업들의 해외이전 대상 사업과 해외인력 채용분야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김균미기자 kmkim@kdaily.com